

광주·전남 선수단, 장애인 사격월드컵 '금 사냥'

15~25일 창원에서 열려
19개국 236명 출전 열띤 경쟁
광주·전남에선 7명 출전
김근수·이윤리 등 메달 후보



10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를 다짐하고 있는 광주장애인 사격 선수들. 임은빈(앞줄 왼쪽부터)·김관욱·김근수 선수.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 장애인 사격 이윤리 선수.

광주·전남 장애인 사격 선수들이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금사냥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WSPS)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문상필)이 주관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다. 개인전 및 단체전 40개 종목 120개의 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9개국 236명(선수 147명·임원 89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광주·전남 선수를 비롯해 2022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 선수단 23명 등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패럴림픽 및 2022년 장애인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2022황제우패러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최소자격점수(MQS)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다. 광주에서는 김근수(광주시청)가 소총종목에 출전하고 권홍에 김관욱, 임은빈(이상 광주시청), 신연우, 원석희가 권총, 박동안(광주 일반)도 소총종목에 참가한다. 전남에서는 이윤리가 소총 종목에 출전하는 등 광주전남을 통틀어 7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김근수는 메달이 유력한 선수다.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포함한 단체전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개인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다. 김관욱 역시 2019년 하노이국제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실력파다. 박동안도 2019 아시안국제사격월드컵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국내 전국체전 및 각종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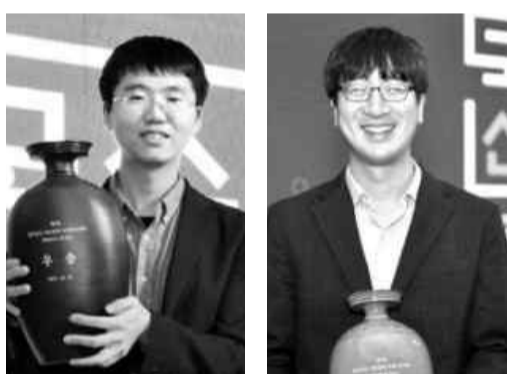
원석희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 이번 대회 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은빈과 신현우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윤리는 강력한 메달 획득 후보다. 2021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2020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해 5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금메달, 2016년 리우패럴림픽 은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검증받은 선수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4년 연속 국내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했다.

사격 월드컵은 주로 유럽에서 열려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대회를 진행하면서 아시아와 국내 사격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치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은 "WSPS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4년간 월드컵 대회 국내유치를 확정지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4년간 한국 장애인사격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바둑 최고수는... 12~15일 전남도 국수산맥 국제대회

한·중·일·대만 16명 출전
국제·국내·청소년 3개 부문
강진·영암·신안 3곳서 열려



변상일 9단 (왼쪽) 박영훈 9단 (오른쪽)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4개국 프로기사들이 우승컵을 다투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제8회 전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12일 강진군 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15일까지 나흘간 열전을 펼친다. 국수산맥배는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청소년대회로 나눠 3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각각 프로기사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세계프로최강전은 영암군에서 열리고, 국내 프로 토너먼트는 신안군에서, 영재들이 출전하는 청소년대회는 강진에서 각각 진행된다.

세계프로최강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16명이 출전해 최강자를 가린다. 8명이 출전하는 한국은 지난해 우승자 변상일 9단과 준우승자 신진서 9단, 박정환 9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고 신민준·김명훈은 국가대표 시드를 받았다.

김지석·원성진 9단은 국내 선발전전을 통과했고 강동윤 9단은 후원사 시드를 받아 출전한다. 중국에서는 미위팅·당하오·자오천위 9단 등 3명이 참가하고 일본은 이야마 유타·쉬자위안·이치리키 료 9단이 출전한다. 대만에서는 왕위안원 9단과 라이쥘푸 7단이 출사표를 올렸다. 세계프로최강전 우승 상금은 75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500만원이다. 신안군에서는 열리는 국내 프로토너먼트에는 국내 프로기사 32명이 출전한다. 6대1의 경쟁률을 뚫은 예선 통과자 29명과 랭킹 시드를 받은 박건호 6단, 이창석 8단, 후원사 시드 이창호 9단이 32강부터 단판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툰다. 대만 대국으로 진행되는 국내 프로토너먼트 우승 상금은 2500만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메이저 23승' 윌리엄스 코트 떠난다 올 US오픈 테니스 끝으로 은퇴할 듯

199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세계 여자 테니스계를 평정한 세리나 윌리엄스(41·미국)가 올해 US 오픈을 끝으로 은퇴할 전망이다. 윌리엄스는 1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살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정해야 하는 시간이 오기 마련"이라며 "사랑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힘들지만 나는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윌리엄스는 "나는 앞으로 몇 주간 일들을 즐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확히 언제 은퇴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AP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29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US오픈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윌리엄스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고 있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내셔널뱅크 오픈(총상금 269만7250 달러) 단식 2회전에 올라 있다. 그는 이 대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동, 15일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WTA 투어 웨스턴 앤드 서던오픈에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US오픈을 준비한다.

18살이던 1999년 US오픈 여자 단식을 제패하며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만 23차례 우승한 '테니스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메이저 대회 단식 23차례 우승은 1960~1970년대 선수 생활을 한 마거릿 코트(은퇴·호주)의 24회 우승 다음가는 기록이다. 윌리엄스는 올림픽에서도 2012년 단식과 여자 복식 2관왕에 올랐고, 2000년과 2008년에는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올림픽 복식 우승은 모두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와 합작했다. 윌리엄스는 "만일 내 테니스 경력과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가족을 택할 것"이라며 "US오픈에서 은퇴 행사 같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무엇인가와 헤어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못 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세리나 윌리엄스가 지난 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내셔널뱅크 오픈에서 공격에 실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LIV 골프 소속 선수들 PGA 플레이오프 못 뛰다 미국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부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LIV 골프 소속 선수들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에 뛸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뉴욕 타임스와 골프채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배스 랩스 프리먼 판사는 10일(한국시간) 테일러 구치(미국)와 맷 존스(호주), 허드슨 스와퍼드(캐나다) 등 3명이 PGA 투어의 징계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먼 판사는 "구치 등이 LIV 골프로 이적하면서 이미 상당한 계약 보너스와 2500만 달러의 대회 수입을 벌여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며 "PGA 투어 플레이오프 출전 금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PGA 투어로부터 플레이오프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이들 3명의 선수는 지난 3일 "PGA 투어 플레이오프 출전권이 획득했는데도 출전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PGA 투어 징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는 페덱스컵 랭킹 125위 내에 들면 출전할 수 있는데 구치와 존스, 스와퍼드는 올 시즌 각각 20위와 65위, 67위에 자리했다.

PGA 투어는 "그들은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LIV 골프로 이적했다"면서 "그들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것은 규칙을 따른 다른 PGA 소속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PGA 투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은 필 미켈슨과 브라이슨 디셔보(이상 미국) 등 LIV 골프로 이적한 선수 11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낸 PGA 투어의 반복적 위반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다. /연합뉴스

국내 대중골프장 캐디피 최근 10년 39.5% 올라

국내 대중골프장의 팀당 캐디피가 최근 10년 사이에 4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이 10일 발표한 '연도별 캐디피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중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2012년 9만9300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3만8500원으로 39.5%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같은 기간 비슷한 인상률(38.3%)을 보였다. 18홀 이상 대중제 골프장 242개소와 회원제 골프장 15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팀당 캐디피를 보면 14만원이 156개소, 13만원 130개소, 15만원 10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14만원이 2020년 조사에서 한 곳이었지만 올해 5월 146곳, 8월에는 156개소로 급증했다. 또 연도별 팀당 캐디피 추이를 보면 2010년 10만원에서 2014년 12만원, 2021년 13만원, 올해 14~15만원으로 나타났다.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는데 7년 가까이 걸렸지만 13만원에서 14, 15만원으로 가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골프장 수가 늘고, 야간골프도 늘어나며 캐디 수요는 증가하는데, 신규 캐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캐디피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천법 한국골프소비자원은 "퇴직자들이 종사하는 마셜 캐디제나 로봇이나 외국인 캐디 도입 등이 캐디 부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캐디 동반을 의무화하는 골프장에서는 필요한 캐디의 육성 및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한산: 용의 출현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한산: 용의 출현, 국장판 살아남기 시리즈: 인체에서 살아남기
4관	비상선언
5관	헌트
6관	비상선언, 바다 탐험대 옥토포: 탐험선 대작전
9관	헌트
7관 씨네케틀	비상선언,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DC 리그 오브 슈퍼-펫
8관 씨네케틀	한산: 용의 출현, 탐간: 매버릭,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오늘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 2022.08.23.(화)
장소 :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